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교회의부 리모델링 헌금 안내 ◎

- ※ 배부해 드린 교회의부 리모델링 헌금봉투를 활용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 * 신협 131-019-689782 대전중부교회 / 예) 000건축

[알림]

1. 목장 개강 -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2. LMTC 개강 - 이번주 화요일(7일) 저녁 7시 / 줌(Zoom) 온라인
3. 가정사역학교 학생 모집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줌(Zoom) 온라인
 - * 기간 - 28일(화)부터 10주간 / 회비 - 5만원
 - * 주제 -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삶
 - * 신청 및 문의 - 박혜란 사모(010-4235-1549)
4. 교회주차 안내 - 교회공사 관계로 차량주차시 제2주차장을 이용해주시고, 교회출입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1. 소천 - 1교구 故 강진선 권사(중촌, 2교구 광영옥 집사 시모) / 8월 29일(주일)

[담임목사 동정]

1. 중부시찰회 - 7일(화) 오전 11시 / 북부교회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김종명 목사

| | | | | | | | | | |
|-------|---------|---------|---------|------|-----|-----|-----|-----|-----|
| 담임목사 | 조상용 | 원로목사 | 김주원 | 시무장로 | 김덕현 | 배정만 | 홍순영 | 이원명 | 송경호 |
| 부목사 | 고윤철 | 오상욱 | 김종명 | | 윤종명 | 황덕순 | 임현성 | 김수중 | 임인성 |
| 전도사 | 김명순 | 조정욱 | 전상순 | | 전용주 | | | | |
| 교육전도사 | 정선교(고등) | 김민준(중등) | 현기훈(초등) | 원로장로 | 이인창 | 편봉달 | 정대응 | 최영일 | 윤재룡 |
| | 안성민(유년) | 이정아(유치) | | | 안철호 | | | | |
| 직원 | 박연희(사무) | 김현철(관리) | | 은퇴장로 | 김영한 | 장순석 | 김기성 | 권소열 | 송은규 |
| 어린이집 | 주경애(원장) | 김경희 | 권영은 | 박선희 | 김효진 | 정기조 | | | |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술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1. 9. 5 (NO. 63-36)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일예배

1부 / 오전 7:00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 |
|---------|--|
| * 입례송 | 성도여 다함께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회중찬양 | 내일 일은 난 몰라요 |
| 참회기도 | 다같이 |
| 대표기도 | 윤상덕 집사(1부) / 황덕순 장로(2부) / 임현성 장로(3부) |
| 찬양 |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
| 성경 | 눅 14:25~33 |
| 설교 | 8대 사역(5) : 제자사역 우리는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조상용 담임목사 |
| 헌금 | 461장 |
| 광고 | 인도자 |
| * 공동체고백 | 사명선언문 |
| * 폐회송 |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 축도 | 조상용 담임목사 |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 | | |
|---|---|--|
|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 주일오후 성경읽기예배 오후 4:00 (본당) |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
| * 찬양: 드림 찬양단 * 기도: 김종렬 형제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왕상 19:17-18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 * 찬양: 주찬양 찬양단 * 기도: 김영채 집사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뱀전 1-5장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기도: 서정순b 권사(1부) 이용정 집사(2부) * 설교: 오상옥 목사 * 성경: 딤후 2:20-26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 |
|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 |
| - 담당 교역자 - | * 찬양: 아이노스 찬양단 *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 |

다음주 봉사안내

| | | | | | |
|-------|-----|---------|------|--|-----|
| 주일오전 | 1 부 | 박순병 집사 | 안내위원 | | |
| | 2 부 | 임헌성 장로 | | 식당봉사 | 금 주 |
| | 3 부 | 김수중 장로 | | | 내 주 |
| 주일새벽 | 금 주 | | 주차위원 |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태순 박노태 이길천 이종규 우희정 임춘수 | |
| | 내 주 | | | | |
| 주일오후 | 내 주 | 전승영 집사 | 차량운행 | 1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 |
| 수요일예배 | 1 부 | 김기환 권사 | |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 |
| | 2 부 | 최영란b 집사 | | 3호/ 이윤성 집사 010-9033-5338 | |
| | | | | 5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 |

예배시간 안내

| | | | | | | | |
|-----|-------|----------|-----|----------|-----|---------|----------|
| 주 일 | 1부 예배 | 오전 7:00 | 유아부 | 오전 11:00 | 수 목 | 1부 예배 | 오전 10:00 |
| | 2부 예배 | 오전 9:00 | 유치부 | | | 2부 예배 | 저녁 7:30 |
| | 3부 예배 | 오전 11:00 | 유년부 | | | 목요영성기도회 | 저녁 8:00 |
| | 4부 예배 | 오후 2:00 | 초등부 | | | | |
| | 베데스다 | 오전 9:00 | 중등부 | 오전 9:00 | 매일 | 새벽기도회 | 새벽 5:00 |
| | 오후예배 | 오후 4:00 | 고등부 | | | | |
| | | | 청년부 | 오후 2:00 | | | |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 | |
|----------|-------------|
| 월 (6일) | 최정숙 고한례 장영애 |
| 화 (7일) | 송정숙 |
| 수 (8일) | 공종호 |
| 목 (9일) | 조영희 |
| 금 (10일) | 김종명 김명순 |
| 토 (11일) | 이종옥 송순례 |
| 주일 (12일) | 유창웅 김정식 정영자 |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 요일 | 기도 내용 | 담 당 | 시 간 | 장 소 |
|-----|--------------------|---------|-----------|-------|
| 월 | 교회와 개인을 위해 | 한혜숙 권사 | 오전 11시 | 기 도 실 |
| 화 |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 이영숙 권사 | 오전 10~12시 | 기 도 실 |
| 수 |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 이연옥 집사 | 오전 11~12시 | 기 도 실 |
| 목 |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 목요영성기도회 | 자녀 8시~10시 | 본 당 |
| |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 이종옥 권사 | 밤 12시~4시 | 한 나 방 |
| 금 |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 이성희 권사 | 오후 2~3시 | 기 도 실 |
| 주일 |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 홍선덕 권사 | 오전 10~11시 | 기 도 실 |
| 119 |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 119 문자 | 문자 전송 시 | 처소에서 |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 날짜 | 6일(주일) | 7일(월) | 8일(화) | 9일(수) | 10일(목) | 11일(금) | 12일(토) |
|----|--------|--------|-------|--------|--------|--------|--------|
| 성경 | 히9-11 | 히12-약1 | 약2-4 | 약5-벧전2 | 벧전3-5 | 벧후1-3 | 요일1-3 |

♠ 꽃꽂이

* 금주: 윤종명 장로, 전숙인 권사

♠ 환우

☞ 2교구

* 김선수 성도(남2-1, 손숙기 성도 남편) - 목 디스크 수술 / 튼튼병원

☞ 3교구

* 한충희 성도(남3-4, 홍금희 성도 남편) - 뇌출혈 / 성모병원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 구 분 | 시 간 | 담당자 | 기 간 | 장 소 |
|------|------------|--------|-----|-----|
| 새가족반 | 2, 3부 예배 후 | 오상옥 목사 | 4주 | 당회실 |

평신도 신앙훈련

| 구 분 | 내 용 | 기간 | 사 역 목 표 | 담 당 자 |
|-------------|-------------|------|----------------------------|------------|
| 신앙성장 과 정 | 학습·세례 교육 | 3주 | 신앙 교육 강화 | 담 당 자 |
| | 교리 생활 공부 | 1년 | 1 학 기 : 교리편 2 학 기 : 생활편 | 담 임 목 사 |
| | 가정 사역 학교 | 13주 | 행복한 가정 만들기 | 김혜경 사모 |
| | 제 자 | 제자반 | 1년 |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
| | 훈 련 | 사역반 | 1년 | 사역자 양육 |
| | 목 자 훈 련 | 매주 | 목 자 훈 련 | 각 교구 교역자 |
| | 양 육 1 단 계 | 5주 |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경험하기 | 담 당 자 |
| | 회 복 수 양 회 | 1박2일 | 내적 치유 | 담 당 자 |
| | 양 육 2 단 계 | 8주 | 성숙한 성도의 삶 경험하기 | 담 임 목 사 |
| | 중 보 기 도 학 교 | 6주 | 기도 헌신자 훈련 | 담 당 자 |
| L M T C | 평신도 선교훈련 | 24주 | 단기선교 준비 과정 | 담 당 자 |
| 청춘 대학 | 다양한 교육활동 | 4년 | 노년의 행복한 삶 | 조정옥 전도사 |
| 아기 학교 | 주간 아기 교육 | 12주 | 신앙적인 전인교육 | 김명순 전도사 |
| 목요 전도 | 전도훈련·지역전도 | 매주 | 지역 복음화 | 고윤설 목사 |

찬양대

| 구 분 | 찬양대 | 지휘자 | 반주자 |
|-------|------|-----|------------------|
| 주일새벽 | 시 온 | 이종운 | 김예원 |
| 주일 1부 | | | |
| 주일 2부 | 예루살렘 | 이규인 | 피/ 임지희 오/ 문정애 |
| 주일 3부 | 할렐루야 | 장지이 | 피/ 김영미 오/ 임형선 |

| 구 분 | 반주자 |
|-------|------------|
| 주중새벽 | 이성희 김경희 |
| 주일오후 | 강주연 |
| 수요 1부 | 문정애 |
| 수요 2부 | 김경희 |

9월 행사 안내

* 1일(수)~3일(금) / 기도의 십일조

* 7일(화)부터 / LMTC 시작

* 12일(주일) / 교회설립 63주년 기념주일

* 27일(월)~10월 10일(주일)

/ 하반기 특별새벽기도회

* 28일(화)부터 / 가정사역학교 시투작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른 교회생활 안내

1. 주일 2,3,4부(청년)예배 좌석 20%이내 대면예배와 온라인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2. 새벽예배, 주일1부, 주일오후, 수요일예배, 목요일영성기도회는 좌석 20%이내 대면으로만 드립니다.
3. 주일학교는 좌석 20% 이내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4.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두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정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울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싼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가야곡중부교회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두란노아버지학교
- 주바라기선교회
- 대전기독교방송
- 대전극동방송
- 기독교임즈
- 총신대학교
- 대전신학교
- 동대전중학교
- 가양중학교
- 명석고등학교
- 내륙흥 노인회
- 가양2동 노인회
- 신도 노인회
- 더퍼리 노인회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8대 사역(4) : 기도사역 - 우리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엽니다(행12:1-12)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했으며, 기도로 사명을 완수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 헤롯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다. 스데반 집사의 첫 순교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순교에 이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여 죽이려고 했다. 위기에 처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와 기도의 관계를 살펴보자.

1.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는 개인의 요구나 필요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당시 극도로 타락했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2.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7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베드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쇠사슬은 자절로 풀려지고, 16명과 2명의 군인들은 깊은 잠에 들게 하셨는지, 두 눈을 뜨고도 못보게 하셨는지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온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감옥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어진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기회와 환경이 찾아온다.

3. 교회는 기도사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한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마가의 집에 가보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들은 베드로가 체포된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다.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구출되어 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마음을 다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당하는 핍박을 곧 교회 공동체의 핍박으로 여긴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나 아픔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멸망의 위기 가운데 서있는 도시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자를 찾으신다. 그 도시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 10일(금) | 찬 176장 | 살후 2:1-12 |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
|--------|--------|-----------|----------------|
|--------|--------|-----------|----------------|

데살로니가교회를 위협하는 요인은 외부적 박해와 환난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의 강림, 즉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1~2절).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법과 도덕에 대항해 그것을 폐지시키려는 무법자로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짓으로 모방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9절). 바울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과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는 이유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10, 12절). 만일 내가 불의를 좋아하게 된다면 사탄의 미혹에 빠지고 마음이 완악해져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비결은 불법을 미워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진리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11일(토) | 찬 546장 | 살후 2:13-17 | 굳건하게 서서 |
|--------|--------|------------|---------|
|--------|--------|------------|---------|

바울은 앞에서 잘못된 종말신앙을 이야기하며, 진리에 대한 부재로 인해 배도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배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하고, 편지로 가르쳐 주었던 진리에 더욱 굳건히 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건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특별한 가르침이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고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말씀을 좀 더 배우고 훈련해야 함에도 게으름 때문에 하지 않거나, 뭔가 다른 가르침을 들어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굳건하게 서는 신앙인이 됩시다.

| 12일(주일) | 찬 347장 | 살후 3:1-18 |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
|---------|--------|-----------|-------------|
|---------|--------|-----------|-------------|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치기에 앞서 삶을 규모 있게 사는 자들에 대해 ‘선을 행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규모가 있다’라는 말은 일상과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대만히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기에 낙심치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는 게으른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깨닫도록 부끄럽게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게으른 자들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평강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당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같은 규모 있는 삶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예물

교회외부 리모델링 헌금

김옥란b(한명열) 김희경(장정금) 신신혜 정기조(이종옥) 정선교(강은지)

심일조

공종호 구은정 구회선(박지숙) 김기성(박순규) 김동선(홍근성) 김동윤(이연옥) 김명순 김문수(이효정) 김선철(이인자) 김수종(김영자b) 김연수 김옥란b(한명열) 김옥진 김용기(정윤옥) 김충규(박순자b) 김태환 김현철(조경희) 김혜정a(이범진) 류순례(김병출) 류창선(배영미) 문정신 박분선 박순병(유승숙, 박재상) 박연희 박은희(황의대) 박정환 박종보 박종순 송경호(김옥희a) 송봉우 송은규(임명숙) 순찬호(이영숙b) 안영세(한혜숙) 양길용(윤상덕) 오세종(김윤정b) 오향순 유현아 육기례(이인재) 육종권 윤재룡(송영희) 이본구(길준숙) 이숙자 이용정(이윤재) 이윤암(김종갑b) 이인창 이춘권(김연자) 이혜정 임몽룡(양홍순, 임효영) 임영숙 임정재(길선례) 임춘수(이종란a) 장영애 정상남(이은숙) 정선교(강은지) 정수진 정영자 정우진(김선주) 정윤식(손석남) 정희성(김윤정a) 조국진(김애란) 조규연(서정순b) 조정옥(노소담) 진재주(박향숙) 최남철(손순이) 최순임(김충효, 김미숙) 최영란b 최영애 하숙희 하현희 황덕순(김기환) 황명동(이후남, 황훈) 황현숙 무명2

감사헌금

고윤설(박혜란) 권상희 김경덕 김다빈 김동선(홍근성) 김상연 김상희 김신(맹경연) 김영준(이명순a) 김재현 김정예(황진석) 김종갑b(이윤암) 김종명 김현철(조경희) 김형민(윤혜성) 김혜울 류창선 박분선 서은경(배인석) 선우진 송봉우 오복순 오상옥(김진남) 우병대(김복순) 이덕성(유희숙) 이신순(서정자) 임춘수(이종란a) 장지이 전상순 정경희(최태호) 정영자 정흥식 정희성(김윤정a) 조상용(김혜경) 진재주(박향숙) 채기병 최진수 최희섭 하숙희(박성원) 하용호(문희정) 한충희(홍금희) 무명2

선교헌금

강병우 구회선(박지숙) 길준숙 김기성(박순규) 김동윤(이연옥) 김명순 김문수(이효정) 김성화(이정희c) 김용기(정윤옥) 김충규(박순자b) 김현철(조경희) 노광숙(조정옥, 노정남, 노소담) 노광호(지윤성) 류순례(김병출) 박명환(김은주) 박봉식(김영숙) 박분선 박연희 박재상(박순병) 박정환 박종순(김은혜) 백승주(김옥진) 서기홍(하복임) 손석남 송경신 송경호(김옥희a) 송봉우 송은규(임명숙) 순찬호(이영숙b) 신순옥 안영세(한혜숙) 안학원 양홍순 오세종(김윤정b) 오향순 유시후 유현아 육종권 윤재룡(송영희) 이기철a 이남운(한도희) 이본구 이용정 이용희 이윤암 이은숙 이인창 이춘권(김연자) 이혜정 임영숙 임춘수(이종란a) 장영애 전옥순 정상남 정영자 정하민 정하영 정희성(김윤정a) 조국진(김애란) 진재주(박향숙) 최순임(김미숙) 하숙희 하현희 홍근성(김동선) 황명동(이후남, 황훈, 김보미) 3여전도회 6여전도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131-019-689782 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농협 301-0072-3936-51 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 6일(월) | 찬 180장 | 살전 4:13-18 |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
|-------|--------|------------|----------------------------------|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미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불신자와 같은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13절).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14절). 모든 성도는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주를 영접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삶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계획이나 목표가 좌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해서 영원한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현재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을 꿈꾸며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7일(화) | 찬 179장 | 살전 5:1-11 |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
|-------|--------|-----------|--------------------------|
|-------|--------|-----------|--------------------------|

바울은 마치 도둑이 들어오는 때를 알 수 없듯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방심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산모가 느끼는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2~3절). 주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라면 빛 가운데서 늘 깨어 준비해야 재림의 때가 이르러도 무서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6절).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데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며(8절), 성령 충만한 상태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일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 8일(수) | 찬 370장 | 살전 5:12-18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
|-------|--------|------------|--------------------------------|
|-------|--------|------------|--------------------------------|

고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기쁜 소식이며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거나 억지로 견디기만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16~18절).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혼란한 마지막 때라 해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기에 자신의 백성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 주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에 힘입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9일(목) | 찬 215장 | 살후 1:1-12 |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
|-------|--------|-----------|-----------------|
|-------|--------|-----------|-----------------|

바울은 편지 서두부터 데살로니가교회에 대한 축복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바울도 그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도 남아 있던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인내하며 자기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 연약해 보이는 교회가 이처럼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자랑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확실한 증거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